

퍼스넬리티와 페르소나는 뭐가 다른가요?

퍼스넬리티(personality)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원래 성격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대로만 살지는 않아.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그걸 페르소나(persona)라고 해. 심리학 용어로는 내적 성격과 외적 성격으로 구분하기도 하지.

예를 들어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이 딸에게서 “아빠는 너무 드라이해”라는 투정을 들으면 “내가 뭐 어떻다고!” 하며 반박하지만, 마음에 잘 새겨두지 않겠어? 그러고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부드럽게 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든.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페르소나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내 진짜 성격, 퍼스넬리티는 모른다는 거야. 그들은 나의 페르소나에 반응할 뿐이야. 내 퍼스넬리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꿔서 보여준 모습에 반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페르소나를 잘 가꾸어야 해. 이걸 가식적이라는 등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부족한 면을 채워간다는 의미로 보면 이 또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 아니겠어?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훈남 배트맨을 연기한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허슬>에서는 비만한 뱃살을 드러낸 민머리 사기꾼 어빙으로 나와. 둘이 동일인물이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모습과 연기가 전혀 달라. 그는 영화를 위해 자기 몸무게를 81, 55, 98, 61kg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로 유명해. 대단한 배우야. 자기 배역에 충분히 빠져들어 페르소나를 창출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볼 때 크리스천 베일이라 의식하지 않고 그 배역에 몰입하게 되잖아.

훌륭한 배우는 배우가 아니라 영화의 배역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배역에 충실해야겠지. 《 Self